

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살아’



21세기에 살아남을 창작오페라

지난 4월 10일 진도에 비제 오페라 ‘카르멘’ 갈라 콘서트를 해설하러 갔다. 공연은 저녁 7시 시작이었는데 5시가 조금 넘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어 오페라를 보러 극장 밖에 줄을 선다고? 뭔가 놀랍고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오페라 극장에 오페라를 보러 청중들은 많이 오지만 공연 2시간 전부터 청중들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일은 요즘 현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군중들이 늘어나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이유인즉슨 진도향토문화회관의 객석이 600석인데 이미 매진이 되어버려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자 오페라 ‘카르멘’ 공연을 보고 싶어한 청중들이 흑시나 자리가 있을까 싶어 몰려온 것이었다고 한다. 진도 사람들은 이날 공연을 보고 늘 판소리와 국악공연만 하던 진도에 30년 만에 처음 오페라 공연이 열렸다고 했고 안 전문제로 더 이상의 입장이 불가하자 공연 시작한 후 10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니 주로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오페라라는 공연장르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청중의 집중도 속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날 공연에서 ‘투우사의 노래’가 나오자 청중들은 박수를 신나게 치기 시작했다. 정말 박수 치기 좋은 템포의 곡이다. 그런데 이 세비아의 술집에서 울려 퍼지는 늑대한 투우사의 아리아 테마가 이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4막 피날레 카르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폐인이 돼 탈영한 돈 호세와 카르멘이 투우장 앞에서 크게 다투고

싸울 때 투우장안에서는 투우사 에스카미요와 검은 소가 생사 갈림길의 대결을 펼치는데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투우사의 노래 테마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박수를 치면 안되는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다. 그런데 카르멘이 곧 죽게 되는 장면에서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곡이 느려지자 또 느리게 박수를 친다.

살면서 참 많은 ‘카르멘’을 보았지만 이 장면에서 투우사의 노래 주제에 맞춰 박수가 나온 건 처음이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오페라를 본 적이 없는 청중들은 아는 신나는 테마가 또 나오니까 박수를 친 것이었고 곧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박수는 청중이 ‘카르멘’을 보고 투우사의 노래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증명해주는 표시였다. 오페라 ‘카르멘’을 처음 보고 투우사의 노래 하나만 건져도 그게 얼마나 인생에 값진 선물인가 말이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 장면에서 박수를 치는 것을 매우 긍정적인 시작으로 보게 됐다.

공연 다음날 아침 목포로 가던 도중 어제 차안에서 멀리서 봐두었던 총무공 이순신 동상을 실제로 감상하러 울돌목에 갔다. 창작 오페라 이순신 연습을 하면서 소리 높여 부르던 울돌목이 눈 앞에 있었다. 물이 우는 관문인 울돌목은 한자로 하면 명랑으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으로 왜군에게 대승을 거둔 역사적 장소. 서해와 남해의 조류가 만나는 이 곳의 조류는 대단히 깨끗하고 장관이었다. 여기서 압도적인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동상과 울돌목의 빠른 조류를 눈으로 체험하고 서늘에

돌아온 난 오페라 ‘이순신’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다.

3월 8일부터 시작된 연습후 4월 25 ,26 ,27일 3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양재무 대본, 작곡, 지휘의 이마에스트리 오페라 ‘이순신’에 출연했다. 처음 이들은 백성(합창) 역할이었고 셋째 날 공연에서는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하는 어명을 전하는 도승지역을 맡아 불렀다.

이 작품을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한국 창작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많은 창작 오페라가 만들어지지만 살아남은 작품은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 초창기의 현대명 ‘춘향전’과 장일남 ‘춘향전’을 빼면 손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뮤지컬계는 다르다. 내가 요즘 오페라 강연을 하고있는 경기아트센터, 오늘 이 글을 쓰기 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야음악회를 치른 전주의 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6월 공연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페라계 입장에서선 매우 부럽게도 ‘명성황후’는 서울 공연 이후 전국 투어를 하는 모습이다. 생각해보면 1995년에 초연한 후 1997년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공연을 했으니 무려 30년이 된 뮤지컬이 2025년 전국 공연으로 커다란 날개를 펼치게 된 것이다.

오페라 ‘이순신’ 도 계속 작품을 개정해 나가면서 전국인이 즐길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한국의 오페라 공연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음악평론가, cpbc평화방송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진행〉

의료칼럼



정 명 호
전남의대 명예교수
광주보훈병원 순환기내과 부장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 의과대학 학생들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북괴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서 40년간 필수의로인 순환기내과 교수로 근무한 후에도 현재 국립보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선 더욱 마음이 무겁다.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3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육군 대위로 임관하여 3년을 최전방을 포함해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를 마치고 국립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일반의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의과대학 입학생 중 여학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군의관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 중에 39개월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지원하는 학생은 없어질 것이고 18개월만 근무하는 사병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국립의대가 없고 도서 및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에 공공의대가 설립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공공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진료를 담당할 교수 요원의 양성이다. 필자는 40년동안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시간직,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정년퇴임 때까지 근무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 국립대학병원 교수 중 많은 이들이 사직하고 개원하거나 서울 지역의 사립병원으로 이직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로 국립의대 교수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무너졌고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립대학병원을 떠나는 것이다. 목포나 순천지역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우수한 교수 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과 연구실 설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료 시설이 서울지역의 사립 대학병원보다 우수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의대 졸업생 3000여명중에 기초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우리 정부는 기초의학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방 국립대학병원 시설과 임상교수들에 대한 배려도 서울 지역의 사립병원에 비해 열등하

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전국 어느 대학병원으로도 갈 수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서울지역의 대형 사립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자녀 혹은 친척들이 거의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균형 발전 없이는 지방 대학병원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연구 및 진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우수한 교수진도 확보해야 지역 환자들도 공공의대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전남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충분한 상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전남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목포와 순천 인구를 합해도 50만명이 되지 않아서 대학병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면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서 낙후되고 소외된 전남지역의 의료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하여 향후 군의관, 공중보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설득해야 할 사항이다.

대학병원이 없는 낙후된 우리 전남지역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으로 전남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꾸준히, 그러나 끝까지

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에도 음모론을 확산시킨다.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시정자 유임을 노리며 선동적 영상을 게시하고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유튜브들도 그중의 한 원인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절차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 시연회, 기획 보도 및 카드 뉴스 게시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자수 매시간 공개 등 최대한 투명하게 선거관리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개표시에도 지난 국회 의원선거에서 했던 수검표 절차를 다시 포함하여 1차로 투표함을 개합하고 후보자별로 분류 후 투표지분류기를 거쳐 다시 점검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직접 선거 과정을 보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되며,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을 비롯하여 인쇄물·선거인명부 관리,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 전 과정을 직접 현장으로 가서 참관한다. 참관단 운영은 참관 이후 설문조사, 평가보고서 등을 통하여 선거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촉진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선거이기에 정당·후보자, 국민 모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약을 만들거나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책선거의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인 물선거에 치우치지 않도록 후보자·국민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공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0대 정책·공약, 책자형·전단형 공보, 선거공약서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한다. 정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언론·온라인·인쇄물·시설물·캠페인 등 각종 매체와 계기를 통하여 정책선거가 투표참여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이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시키고 선거관리절차에 투명성·정확성을 높이며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한 번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라진다가나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선관위를 부정선거 세력이라며 비난하는 민원인, 위원회 관련 기사의 부정적 댓글 등을 볼 때 선관위 직원들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에 좌절감과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성급한 희망을 품기보다는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 다수가 수용하는 선거 결과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일 때,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자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일에 있어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가치가 있음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바위에 도전하는 낙수들이 되겠다 다짐해본다.

社 說

광주신세계 ‘2015년 악몽’ 재현 안된다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복합쇼핑몰 사업이 광주시와의 갈등으로 좌초 위기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얼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세계측과의 입장차를 설명하며 공론화 되는 모양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신세계가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빨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천터미널 주상복합시설의 세대수(516세대)는 충분한 협의의 결과인 만큼 신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거시설 면적 확대는 없다고 뜻을 밝혔다. 신세계는 최근 사업 진행을 위해 광천터미널 부지 철거공사를 준비했다가 포기한채 광주시에 사업제안서 제출 전에 주거시설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세계가 800세대를 요구하는데 반해 광주시는 당초 계획대로 516세대를 고집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대수가 아니라 주거시설 면적이 갈등의 진짜 원인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16만 5000㎡인데 신세계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

며 25만 4000㎡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제안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강 시장은 105%가 넘는 주택보급율과 미분양 주택 등을 감안하면 주거시설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신세계는 광주시가 요구한 교통 개선대책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은 모두 수용한 마당에 현 상태로는 수익도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강 시장은 면적 확대는 없다면서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신세계는 이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2015년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 등 복합시설을 추진했다가 시민단체 반대로 포기한 악몽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신세계는 광주 투자를 포기하고 대전으로 선회해 복합쇼핑몰 하나 없는 ‘노점 도시 광주’의 발미를 제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주거시설은 3단계 사업에 포함돼 2033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1~2단계 사업부터 진행하고 추후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2015년의 악몽이 재현되어선 안 된다.

호남 배신 이낙연...내란세력과 연대라니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비판받고 있다. ‘반 이재명 빅텐트’와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자신을 키워준 호남과 민주당을 배신하고 ‘반명 전선’에 나서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비판이다. 더구나 대선 출마를 코 앞에 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연대를 고민하는 것을 두고 내란세력과 연대라는 강한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이 고문은 그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사람들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연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반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반이다’고 답했다. 이런 태도는 어제 한 권한대행의 러브콜을 불렀다. 한 대행은 이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2일중 식사를 하라고 제안했는데 지방 일정을 이유로 일단 거절했지만 만

남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이재명은 싫으니까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 고문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반 이재명을 위해 내란세력과 손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란세력과의 거래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고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국회 의원조차 민주당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영광 출신인 이 고문은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민주당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호남을 기반으로 누릴 것은 모두 누린 정치인이 내란세력과 연대를 생각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부터라도 조용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 호남과 민주당은 물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無 等 鼓

며칠 전 무려 1365편의 시를 암송하는 철순의 박성춘 세무사를 취재했다. 친구 보증을 떠 안게 된 그는 마음을 다스리려 시를 외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 암송이 일상이 됐다. “시는 시공을 넘나들며 언어의 신비로 조각된 언어 예술의 극치이다”라는 시 애찬을 모비명으로 정해두었을 정도다.

그를 소개해 준 이는 광주에서 시암송극 민운동본부(이사장 문광자) 활동을 하는 문길집 드앵아트홀 관장이었다. 프랑스유 학시절 학교에서 시암송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본 그는 누나인 문광자 패션디자이너와 함께 2006년 시암송 본부를 만들었다.

문 이사장의 도움으로 김광섭의 ‘새 얼굴’ 등이 담긴 ‘외우고 싶은 명시 50편’ 소책자 1만여 부를 제작, 전국에 무료로 보급한 그는 지금도 원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50편 암송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2년 안에 좋은 시 10편 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취재를 하며 나의 애송시를 떠올려봤다. 함민복 시인의 ‘뿔’이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한 발을 잡아준다/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가는 길을 잡아준다/말랑말랑한 힘/말랑말랑한 힘”

아주 짧은 시라 외우기도 쉽다. 유연하되 무르지 않고, 부드럽되 나약하지 않고, 여유롭되 나타하지 않고, 이해하되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말랑말랑한 힘’이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

지인은 황지우 시집 ‘나는 너다’에 실린 ‘503’을 아침마다 읽으며 다짐하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다. “새벽은 밤을 꼬박

자넨 자에게만 온다/낙타야,/모래바친 눈으로/동트는 地平線을 보아라/바람에 떠밀려 새날

이 온다/일어나 또 가자”(중략)고 노래하는 시다.

살면서 떠올릴 수 있는 애송시 몇편 짚간직하는 건 멋진 일이다. 마침 5월 7일 두 사람의 시암송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드앵아트홀에서 열리니 시의 세계에 빠져봐도 좋을 것 같다. 박 세무사는 시를 외우는 게 어색하다면 우선 시로 만들어진 ‘노래’를 애창곡으로 삼아보고라 권했다. 아름다운 ‘시노래’를 찾아 먼저 불러볼 일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6·3 선거 공감’ 기고 <1>



정 수 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적전석(水澣穿石), 즉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와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로 적은 노력이라도 지속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남짓 남은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간절함 염원을 담은 메시지 같아 자꾸 되뇌게 된다.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왜, 누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지 사실 의혹의 실체가 없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상은 다양한 심리·사회·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 세력이나 지지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에 따른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고, 정보의 확증편향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만 받아들이며,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은 유사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해 그러한 주장을 강화시키고 마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 정치나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 정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보거나 선거제도나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선관위나 사법기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경 제 부 220-0648	에 향 부 220-0692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